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통제소재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Perceived Adequacy Resource and Locus of Control
on the Stress from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in Housewives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 교수 장윤옥
경북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정서린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Yoon-Ok Jang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Seo-Leen Je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erceived adequacy resource(PAR) and locus of control on the stress from the family resources management in housewiv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74 married women who lived in apartment in Taegu. A questionnaire was used as survey method. Factor analysis and MANOVA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and Scheffe test for post-hoc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

First, the effect of PAR on the degree of the stress from the family resources management was not different according to locus of control.

Second, the stress from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AR.

* 이 연구는 97년도 경북대학교 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Thir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he stress from the family resources management according to locus of control.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현대가정의 주부들은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가족구성원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더 많은 요구를 받고 있다. 또한 급속한 산업발전은 가정생활에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가사노동의 단순화, 교육수준의 향상, 가족의 불안정성, 가족체계내에서의 역할의 변화와 같은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가정생활의 내용과 환경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가족이 사용하는 인적·물적 가정자원에 질적·양적 변화를 가져왔고 주부들은 가정자원의 선택 및 관리에 있어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장명옥, 1982).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도 가정내의 자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계속 확장되고 있어 주부는 가정자원의 부족과 가정자원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더욱 많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주부는 가정내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개인적 위치보다는 가정자원관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가정 내·외환경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때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긴장감과 부담감을 갖게 된다. 특히 유한한 가정자원과 무한한 가족구성원의 욕구는 주부가 가정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킨다. 그러나 동일한 가정자원이라 하더라도 가정자원관리자가 이용·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가정자원의 양이나 만족감은 크게 다르다(고보선과 이영호, 1995).

주부가 가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정자원 자체의 양에 대한 객관적 인식도 중요하지만 가정자원에 대한 주부의 주관적인 의식과 지각이

더 중요하다(Rowland, Dodder 그리고 Nickols, 1985; 조영희, 1991; 서리나, 1994). 가정자원관리자인 주부가 실제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가정자원의 양, 이용가능한 가정자원의 종류와 상태 등 객관적인 가정자원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로 가정자원을 보다 적절하게 지각한다면, 이용가능한 가정자원의 양을 심리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어 가정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이명숙, 1987).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개인의 만족정도나 인지상태에 따라 다른 것처럼 주부가 가정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도 객관적인 가정자원의 조건(김경아, 1990; 최덕경, 1992; 이정우, 황경혜 그리고 정진희, 1994)뿐만 아니라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정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절대적 빈곤의 시대에서 상대적 빈곤의 시대로 변화하는 현시점에서는 객관적인 가정자원의 양보다 주부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가정자원의 양이 주부의 심리적 상태와 관리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의 영향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가정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부가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이혼이나 죽음과 같은 생활사건에서 인지하는 스트레스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가정자원관리 그 자체가 성격상 단조롭고 반복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누적적인 만성적 스트레스로서 작용한다(이정우 등, 1994). 이러한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는 주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과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의 행복과 가정복지의 질적 향상이라는 가정자원관리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가정자원관리 능력,

가정자원관리 유형 및 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가정자원관리 행동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주로 이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으나 가정자원관리 산출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주부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연구들만을 수행해 왔을 뿐이다.

한편 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동일한 상황에서라도 실제 존재하는 스트레스의 부적효과가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중재하는 성격변인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Casta와 McCare, 1980 ; Hooyman과 Kiyak, 1988 ; 백기청, 1987 ; 김현수, 1991). 이들 연구에서 통제소재는 스트레스 지각 수준과 스트레스에 대한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특성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김현수(1991)는 통제소재가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 반면 백기청(1987)은 통제소재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고은숙(1992)은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낀다고 하고 Matthews(1982)는 내적통제자가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외적통제자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말한다. 이처럼 연구결과들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속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이 여러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단일요인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부의 심리상태와 관리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통제소재라는 심리적 변인을 동시에 조망하므로써 각각의 한 변인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된 가정자원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

으로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른 통제소재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정자원에 대해 각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가정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폭넓은 이해를 돕고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통제소재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가정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정자원관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가정자원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가정자원관리전략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이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소재에 따라 다를 것인가?

둘째,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라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통제소재에 따라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1) 가정자원적정도지각 : 주부가 가정내·외의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자원에 대해 적절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통제소재 : 주부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성격특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소재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통제소재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① 내적통제성 : 주부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며 그러한 상황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격특성을 말한다.

② 외적통제성 : 주부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타인이나 운, 우연, 운명과 같은 외부환경에 두며 그러한 상황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격특성을 말한다.

3)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 가족의 욕구충족과 만족이 극대화 되도록 가정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부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부담감, 긴장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물적, 환경적자원관리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가정자원과 가정자원적정도지각¹⁾

가족은 다양한 가정자원을 가정자원관리체계로 투입하고 가정자원관리활동을 수행하므로써 만족감을 얻게 된다. 가정자원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리과정을 거쳐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것이지만 가정자원의 관리는 다양하고 제한된 양의 가정자원을 많은 목표달성을 위해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더구나 가정자원의 양이 유한하기 때문에 가족의 무한한 욕구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항상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주부는 가정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동일한 가정자원이라 하더라도 가정자원관리자가 가정내의 인적·물적자원과 가정외부의 환경자원을 적절한 형태로 선택·이용·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가정자원의 양이나 만족감은 크게 다르다(고보선 등, 1995). 따라서 가정자원관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정자원관리자가 가정자원의 객관적인 조건, 즉 자원의 양, 이용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상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가정자원을 재분배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가족의 복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제소재

성격특성은 개인의 인지적 특성의 하나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자원이다(Casta와 McCare, 1980 ; Hooyman와 Kiyak, 1988). 이 중 통제소재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중재하는 변인(김현수, 1991)이며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특성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제소재는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이나 운, 우연, 운명과 같은 외부환경 중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성격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설인자, 1989). 일반적으로 통제소재를 그 성향에 따라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고 스스로 그런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격특성을 내적통제성으로, 원인을 타인이나 운, 우연, 운명과 같은 외부환경에 두며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성격특성을 외적통제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Doherty(1981)은 내적통제자들이 외적통제자들보다 순응적이고 사회적 영향에 대해 불평을 더 적게 하며 과업지향적이고 개인적 적응을 더 잘한다고 한다. Brown, Heltsley 그리고 Warren(1982)은 내적통제자들이 생활을 더 잘 통제한다고 말하고 Baker와 Kivett(1976)는 내적통제자들이 생활에 더 만족한다고 보고한다. 고은숙(1992)은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끼기는 하지만 통제소재변인이 주부의 취업여부와 취업직종, 연령 변인들보다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반면 백기창(1987)은 통제소재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부적응 정도가 다르며 통제소재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1) 구체적인 내용은 대안가정학회지, 34권 6호, 1996(p. 355-356)을 참고하기 바람.

말한다.

Strickland(1978), Burke와 Weir(1980)는 주부의 스트레스와 통제소재에 관한 연구에서 내적통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외적통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며(임동명, 1991에서 재인용) 강인(1989)은 주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소극적 태도와 친구, 친척, 이웃의 지원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다. 황상하(1995)는 내적통제자들이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정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낀다고 한다. 이것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높아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와는 달리 Matthews(1982)는 내적통제자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고 행동이 무력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적통제자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김에숙(1986)도 내적통제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외적통제자보다 더 많은 불안을 보인다고 한다.

이상의 여러 연구에서 통제소재가 주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들이 서로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지만 통제소재가 주부의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3.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²⁾

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주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장병욱, 1985 ; 이광주, 1988 ; 이안나, 1991 ; 이정우와 최덕경, 1992) 의무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Menaghan, 1983). 특히 주부는 가정내에서 가정생활을 주도하

고 가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스트레스를 수렴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주부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련성을 고려하여 가정자원을 관리해야 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창조해야 하므로 가정자원관리 과정은 주부에게 많은 긴장감과 부담감을 초래하며(최동숙, 1991) 이러한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는 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이정우 등, 1994).

가정자원은 스트레스를 방지해 주는 자산으로 가정자원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명백한 부적상관 관계를 지닌다(Lazarus와 Folkman, 1984 ; 정민자, 1983 ; 전세경, 1988 ; 두경자, 1991 ; 최호숙, 1992)고 한다. 최연실(1996)은 가족자원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자원의 객관적 양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자원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정자원을 인지적, 심리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가정자원관리 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주부 자신의 자각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Rommel(1989)은 아내와 남편의 가정자원적정도지각, 갈등해결양식,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은 객관적 수입과 관계가 없고,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남편이 아내보다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수준이 더 높고 아내가 남편의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수준을 더 잘 예측한다고 말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가정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적정하다고 느끼는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문제해결 상황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Nowicki와 Brissett(1977)는 내적통제자는 스트레스에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외적통제자보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인다고 말한다. 또 윤소영(1992)은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

2)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가정학회지, 34권 6호, 1996(p.356-357)을 참고하기 바람

는 제약요인 및 통제소재에 관한 연구에서 내적통제적 성격을 가진 주부일수록 가사노동수행 수준이 높다고 한다.

비록 통제소재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로 보아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은 가족구성원들의 욕구와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제한된 가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기 위해 가정자원관리 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가정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따라서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은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보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더 적게 지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덕경(1992)은 주부들이 애정 및 기질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하며 이정우 등(1994)은 전문직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다고 한다. 또한 가정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전문직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는 부적상관이 있으며 전문직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편의 지지도라고 한다. 따라서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감소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부에게만 전통적인 가정자원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하기 보다는 부부가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해 주어야 하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정자원관리자가 되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려고 더불어 노력해야 한다(전영자, 1991)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시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 중에서 층화표집한 474명의 주부들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996년 9월 10일 현재 대구시내의 각 구(동구, 서구, 중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분포 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각 구별 아파트 거주 세대의 비율대로 각 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7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각 학교에 재학중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통해 주부에게 전달한 뒤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배부하여 1996년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565부였으며 이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응답이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한 474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30세 이하인 주부는 20명(4.2%), 31-35세는 41명(8.7%), 36-40세는 204명(43.0%), 41-45세는 153명(32.3%), 46세 이상의 주부는 56명(11.8%)이었다. 주부의 학력은 중졸이 85명(17.9%), 고졸이 209명(44.1%), 전문대졸이 42명(8.9%), 대졸 이상이 138명(29.1%)이었으며 취업주부는 182명(38.4%), 전업주부는 292명(61.6%)이었다. 거주하는 아파트의 크기는 20평 이하가 61명(12.9%), 21-30평은 169명(35.6%), 31-40평은 160명(33.8%), 41평 이상은 84명(17.7%)이었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21명(4.4%), 101-200만원이 153명(32.3%), 201-300만원이 167명(35.2%), 301-400만원이 70명(14.8%), 401만원 이상이 63명(13.3%)이었다.

2. 측정도구

1)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척도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척도는 Rowland 등(1985), Rommel(1989)과 조영희(1991)의 척도를 기초로 2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동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선정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시간(3문항), 지식·기술(4문항), 건강(3문항), 대인적자원(3문항), 금전(5문

항), 주거(4문항), 지역사회(6문항)자원으로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중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1문항을 제외시키고 28문항을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86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중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의 점수가 높은 상위 25%를 가정자원적정도지각 上집단(120명)으로, 하위 25%를 가정자원적정도지각 下집단(119명)으로, 나머지 50%를 가정자원적정도지각 中집단(235명)으로 분류하였다.

2) 통제소재 척도

통제소재 척도는 Rotter(1957)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Sumarwan과 Hira(1993), 김민환(1987), 윤소영(1992), 고은숙(1992) 등의 척도를 참고하여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내적통제성, 외적통제성)으로 분류되었고 부하량이 낮거나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문항이 없었으므로 12문항 모두를 내외통제성 척도로 사용하였다.

통제소재 척도의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외적통제성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6문항)은 역산을 함으로써 내적통제성 문항(6문항)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의 내적통제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61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중 통제소재 척도 점수의 평균이 2.5이상인 집단을 내적통제 집단(302명), 2.5이하인 집단을 외적통제 집단(172명)으로 분류하였다.

3)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척도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척도는 최덕경(1992), 지금수(1992)와 서리나(1994)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3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30문항 중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

된 1문항을 제외시키고 29문항을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을 검토한 후 요인 1을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11문항), 요인 2를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11문항), 요인 3을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7문항)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 요인별로 .86, .83, .82이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른 통제소재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가정자원적정도지각 上, 中, 下집단) \times 2(내적, 외적통제성) 요인설계에 의해 자료를 수집한 다음 SPSS* Program의 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 다변인변량분석) 절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고 집단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통제소재에 따른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가정자원적정도지각(上, 中, 下집단)과 통제소재(내적, 외적통제성)가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인적자원, 물적자원,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인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의 주효과($F=6.21930, P < .05$), 통제소재의 주효과($F=5.09771,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통제소재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소재라고 하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을 측정함에 있어 질문지법을 사용한 연구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중 내적통제 집단이 63.7%, 외적통제 집단은 36.3%로 분류되어 Nachmias와 Nachmias(1981)가 반응군(response set)이라고 설명한 편의(bias)가 발생한

〈표 1〉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통제소제에 따른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결과

EFFECT	WILKS	APPROX.F	HYPOTH.DF	ERROR DF	P
가정자원적정도지각(A)	.92449	6.21930	6.00	932.00	.000
통제소제(B)	.96822	5.09771	3.00	466.00	.002
A × B	.98981	.79729	6.00	932.00	.572

것으로 여겨진다. 반응군(response set)은 질문 내용에 관계없이 연구대상자가 모든 질문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주제에 관한 문항일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특히 통제소제를 개인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로 측정하였는데 연구대상자들이 실제 생활에서의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반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관습적, 도덕적 판단이 장려하는 행동과 생각에 반응함으로써 관습적, 도덕적 판단과 실제적인 개인의 통제소제와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되었다. 통제소제에 관한 연구들이 이러한 문제점은 많이 지적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른 많은 연구들(김민활, 1987 ; 윤소영, 1992 ; 고은숙, 1992)에서 사용한 2분법적인 측정척도 항목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동의 정도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Sumarwan과 Hira(199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Likert식 5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개인의 관습적, 도덕적 판단과 실제적인 개인 통제소제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개인의 통제소제를 측정함에 있어서 좀 더 정교한 연구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제소제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고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만으로 단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통제소제가 일반적인 주부의 생활스트레스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다는 단편적인 연구결과(Baker와 Kivett, 1976 ; Doherty, 1981 ; 백기청, 1987 ; 고은숙, 1992 ; 황상하, 1995)들은 제시되고 있으므로 통제소제와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없다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앞으로 통제소제와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이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른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의 주효과($F=6.2193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이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F_{\lambda}=13.35336$, $P<.05$),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F_{\lambda}=10.28594$, $P<.05$), 환경적자원관리 스트

〈표 2〉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의 단변인변량분석결과

(df = 2, 468)

종속변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가정자원 관리 스트레스	인적자원관리	12.81296	224.53031	6.40648	.47977	13.35336*
	물적자원관리	10.06846	229.05246	5.03423	.48943	10.28594*
	환경적자원관리	13.64838	311.51973	6.82419	.66564	10.25206*

* $P < .05$

레스($F_{\lambda}=10.25206, P < .05$)에서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른 세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종속변인에 대한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여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있어 가정자원적정도지각 上집단이 中, 下집단보다, 中집단은 下집단보다 인적자원관리, 물적자원관리,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 모두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있는 가정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이 높은 집단은 중간 정도인 집단에 비해, 중간 정도인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가정자원관리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자신이 지각하는 문제점도 더 적을 것이며 이 때 지각되는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수준도 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수준이 주부가 지각하는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인이라고 한 김경아(199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가정자원 수준 뿐 아니라 객관적 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적정도지각

<표 3>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있어서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종속변인	평균	上	中	下(집단)
인적자원 관리 스트레스	가정자원적정도지각上 = 2.227		.380*	.579*
	가정자원적정도지각中 = 2.607			.199*
	가정자원적정도지각下 = 2.806			
물적자원 관리 스트레스	가정자원적정도지각上 = 2.394		.328*	.604*
	가정자원적정도지각中 = 2.722			.276*
	가정자원적정도지각下 = 2.998			
환경적자원 관리 스트레스	가정자원적정도지각上 = 2.549		.338*	.590*
	가정자원적정도지각中 = 2.887			.252*
	가정자원적정도지각下 = 3.139			

* $P < .05$

이러한 결과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자원 각 영역에서의 관리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이명숙, 1987 ; 서리나, 1994),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하게 되어 주부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최동숙, 1991 ; 현은민, 1994 ; 김경숙과 이정우, 1995), 그리고 가정자원을 적절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주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은민(199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정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정도가 가정자원관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가정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다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대처에 사용될 수

수준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가정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정자원으로써의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3. 통제소재에 따른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제소재의 주효과($F=5.09771,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종속변인 별 단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 중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F_{\beta}=7.00340, P < .05$),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F_{\beta}=14.95559, P < .05$)에서 내적통제성과 외적

〈표 4〉 통제소재의 단변인변량분석결과

(df = 1, 468)

종 속 변 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가정자원	인적자원관리	3.35999	224.53031	3.35999	.47977	7.00340*
관 리	물적자원관리	7.31969	229.05246	7.31969	.48943	14.95559*
스트레스	환경적자원관리	1.23679	311.51973	1.23679	.66564	1.85805

* P < .05

통제성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적자원관리,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 각각에서 내적통제성이 강한 집단(X=2.377, 2.638)이 외적통제성이 강한 집단(X=2.538, 2.831)보다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외적통제자가 생활표준과 생활수준간의 차이를 많이 지각하며 이로 인해 내적통제자보다 생활에 적게 만족한다는 Danes(1991)의 연구결과, 개인의 통제소재 유형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Lefcourt(1976)의 연구결과,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가졌다고 지각하는 개인이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더 많이 만족한다는 Ness와 Williams(1991)의 연구결과와 가사노동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보다 더 능동적이고 가사노동과 다른 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윤소영(1992)의 연구결과들로 설명될 수 있다.

물적자원은 개인과 가족에 의해 소유, 사용, 통제, 측정이 용이하고 관리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내적통제자들은 물적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통제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주부의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는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더 능동적일 뿐 아니라 가정자원관리 활동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는 것 같다.

인적자원은 물적자원에 비해 통제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자원이며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 가정자원이기 때문에 가정자원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산출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 관리의 중요성이 특히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적자원은 물적자원을 사용할 때 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진지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관리되어야 함에도(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 1994) 불구하고 주부가 가정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자원으로서의 효용성을 갖지 못하는 자원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은 자신의 가정자원 특히 인적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자원의 부족과 그 관리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와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통제소재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 가정자원의 특성에 따라 영역별로 연구한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관련시켜 비교·설명하기는 어렵다. 지역사회의 시설이나 정책,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환경적자원은 주부의 통제력이 거의 미칠 수 없는 자원이고, 인적자원과 마찬가지로 주부와 가족성원이 가정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자원으로서의 효용을 전혀 갖지 못하는 가정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적자원관리는 가정자원관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인적자원관리와는 달리 아직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환경적 자원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가정자원이라는 것을 주부들조차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적자원도 훌륭한 가정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부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특히 객관적 가정자원이 부족한 주부일수록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감소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소재가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라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이 높은 집단이 중간 정도인 집단보다,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이 중간 정도인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인적자원관리, 물적자원관리, 환경적자원관리의 세 영역 모두에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셋째, 통제소재에 따라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은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에 비해 물적자원관리 스트레스, 인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부가 가정 내부의 자원 뿐만 아니라 가정외부의 환경적자원도 자신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적 자원을 가정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수준을 높이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고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위

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이며 가정자원관리 활동 역시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통해 몇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통제소재라는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객관적인 가정자원 수준은 고려하지 않아 광범위하고 다양한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통제소재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소재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정교한 통제소재 척도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심리적 변인과 더불어 객관적인 가정자원 수준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부들이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을 향상시키고 내적통제성이 강한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은숙(1992).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 고보선·이영호(1995). 가정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6), 269-280.
- 3) 김민환(1987). 가정환경이 통제의 소재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4) 김현수(1991). 직무만족과 자업오류행동에 미치는 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집단성지각과 내외 통제성

- 향의 증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5) 백기청(1987).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6) 서리나(1994). 주부의 가족자원적정지각과 대상별 가정관리수행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7) 설인자(1989).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에 따른 성공공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8) 윤소영(1992).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 및 통제소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9) 이명숙(1987).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 및 자원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0) 이정우 · 황경혜 · 정진희(1994).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4), 1-15.
 - 11) 장명옥(1984). 가정관리학. 서울 : 교문사.
 - 12)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3.
 - 13) 정민자(1983).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4) 최덕경(1992). 가정관리행동시 주부의 스트레스와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5) 최동숙(1991). 가정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16) 최연실(1996). 청소년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7) 최호숙(1992).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취업주부 가정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 갈등관리 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8) 현은민(1994). Factors in determining resources adequacy perception of rural couples. 대한가정학회지 32(1), 19-30.
 - 19) 황상하(1995).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Baker, E. K.(1976). Relationship of retirement and satisfaction with life events to locus of contro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9B), 4748.
 - 21) Brown, J. J., Heltsley, M. E. & Warren, R. D. (1982). Planning in low-income families : Influence of locus of control and dyadic consensus on realistic standard sett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67-75.
 - 22) Buehler, C. & Hogan, M. J.(1985). Managerial function in single-parent families. Proceeding of the Family/Home Management Selection of the AHEA.
 - 23) Burke, R. J. & Weir, T.(1980). Coping with the stress of managerial occupations. In Cooper. C. L. & Payne. L.(Eds.). *Current Concerns in Occupational Stress*. N. Y. : John Wiley & Sons Inc..
 - 24) Clark-Nicolas, P. & Gray-Little, P.(1991). Effects of economic resource on marital quality in black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45-655.
 - 25) Casta, P. T. & McCrae, R. R.(1983). Contribution of personality research to an understanding of stress and aging. In McCubbin, M. B., Sussman & Patterson, J. M.(eds.). *Social Stress and Family*. New York : The Haworth Press, 157-174.
 - 26) Danes, S. M.(1991). Locus of control, gap between standard and level of living, and satisfaction : A path mod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 282-291.
 - 27) Hooyman, N. R. & Kiyak, H.(1988). *Social Gerontology -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 Allyn & Bascon.
 - 28) Kivett, V. A.(1976).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redictors of locus of control among middle aged adul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5B), 2481.
 - 29) Lefcourt, H. M.(1976). *Locus of control :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Halsted Press.

- 30)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 Y.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31) Matthews, K. A.(1982).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type A behavior pattern. *Psychological Bulletin* 91, 292-323.
- 32) Menaghan, E. G.(1983).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ition :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71-383.
- 33) Nachmias, D. & Nachmias, C.(1981).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2th*. N. Y. : St. Martin's Press, Inc..
- 34) Rommel, J. I.(1989). Wives' and husband' resource adequacy perception, conflict resolution and contextual variables : A longitudin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35) Rowland, V. T., Dodder, R. A. & Nickols, S. Y. (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 :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218-225.
- 36) Sumarwan, U. & Hira, T. K.(1993). The effect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4.